

생태조경과 생태복원(X)

전통마을과 전통가옥에서 찾은 생태건축¹⁾



조 동 길

서울대 조경학과 박사수로

20세기의 후반부터 새로운 밀레니엄과 21세기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 핵심어 중에 하나로 환경이라는 말을 줄곧 해오곤 했다. 실제로 21세기를 접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는 '친환경'과 '생태'다. 도로건설 현장이든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이든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문구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라는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생태건축은 환경친화적인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대두되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생태건축이 추구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연재료나 무공해 제품, 그리고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즉, 기존 건축물의 주요 재료가 되었던 것들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물과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재료를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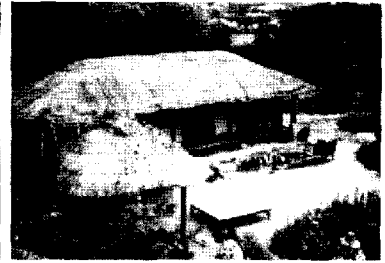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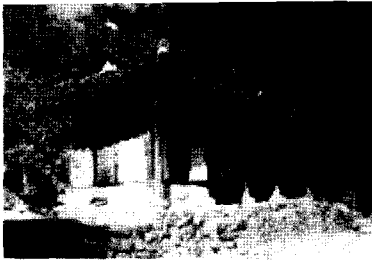
럽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형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 중의 일부는 우리나라의 전통마을이나 전통건축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태건축이 추구하고 있는 주요 기술과 제품별로 우리나라의 전통마을과 전통가옥에서 찾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전통마을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두 자연을 존중하고, 동양사상에 기초하여 입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풍수지리사상에 영향을 받은 배산임수형 마을들이다. 배산임수(背山臨水)는 마을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로 보고 있는데, 배후 산지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풍부한 연료와 음료를 제공하며, 취락이 입지하는 남사면은 배수와 통풍 조건이 양호하며 일조량이 풍부하다. 이러한 조건은 마을내 건축물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이나 강은 농경지를 비옥하게 하며, 생활용수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민속마을에는 안동 하회마을, 양동 민속마을, 순천 낙안민속촌 등이 있다. 전통마을에 대한 내용은 이쯤해서 접기로 하고,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들어가고자 한다.

우선 생태건축은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자연채광을 도입하고, 건축물내 공기의 순환, 옥상

1) 이 글은 필자가 2002년 3월에 기아자동차 소식지에 기고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a)담양 소재원으로 빛과 바람을 고려하고, 자연소재로 구성된 건축물이다. b)담양 소재원의 담장으로 물길을 막지 않으면서 담장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c)순천 낙안민속촌의 초가지붕으로 자연스런 멋을 볼 수 있다.

의 녹화 등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건축물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남향의 배치인데, 이러한 방법은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해준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배산임수에 의한 전통마을이나 전통건축물은 한층 더 효율적이기 마련이다.

두 번째로 생태건축에서는 쓰레기가 적게 발생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권장하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콤포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에서는 이러한 기법은 매우 잘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이다. 버려지는 음식물은 가축을 사육하는데 활용되었고, 이외의 것들은 퇴비로 사용하였다. 더군다나 화장실로부터 나오는 것들도 모두 퇴비로 활용하여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세 번째로 생태건축에서는 상수를 절약하고 빗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물부족 국가나 기상이변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빗물을 이용하거나 허드렛물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마을중에서 물을 잘 활용하는 곳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마을 들일 것이다. 섬지역에서 물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빗물을 모아 저장할 수 있는 향아리(지세향으로 질그릇 향아리를 뜻한다)를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활용하였다.

네 번째로 생태건축에서는 청정제품과 자연소재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자연석이나 흙, 목재를 이용하는 등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건축물로부터 나오는 각종 독성을 줄이는 건강주

택도 선보이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구조물은 모두 자연소재만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기술의 발달이 저조하여 가난의 상징이라고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전통구조물은 목재와 자연석, 그리고 흙과 짚 등을 이용하여 건축되었다. 이러한 건축소재는 자연소재라서 벽이 숨을 쉬고 냉·난방 등의 효과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건축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블록 등으로 조성된 현대 건축물에선 별도의 녹지공간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리하여 생물서식처를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면, 그리고 주변 공간에 도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통건축에서는 모든 공간들이 생물들의 서식처가 된다. 볏짚으로 만든 초가지붕에 박을 올리면 식물과 굼벵이 등을 포함한 곤충, 그리고 처마를 이용하는 제비들의 서식처였다. 그리고, 돌담은 언제나 담쟁이 덩굴이나 호박 등이 걸쳐져 있게 되고, 마당의 가장자리에는 인근 야산에서 날아온 씨앗들이 발아하여 자연스럽게 식물이 자라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곳에는 꽃을 찾아든 나비의 서식처가 된다.

필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생태적인 접근방법은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예전에 선인들이 그러했듯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들로부터 원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선조들의 지혜도 빌릴 필요가 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전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생태건축의 내용은 우리의 전통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